

강정호 ‘펼펼’

2루타 포함 3안타 2타점 1도루

공수주 맹활약... 팀 8-1 승

한국 프로야구에서 미국에 진출한 1호 야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선발로 나가 공수주에 걸친 맹활약을 펼쳤다.

강정호는 지난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방문경기에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5타석 4타수 3안타 2타점 1도루 1득점으로 펼칠 날았다. 강정호가 주전으로 나선 것은 23일 컵스와 PNC파크에서 치른 홈 경기 이후 일주 만이다.

시즌 26타수 7안타를 친 강정호의 타율은 0.182에서 0.269로 크게 올라 다시 2할대에 진입했다. 3안타는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한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이다.

2회초 2사 2루 첫 타석에서 강정호는 컵스 선발 카일 헨드릭스를 맞아 풀카운트에서 6구째 바깥쪽 변화구를 걸러내 볼넷을 얻었다.

0-1로 뒤진 4회초 2사 3루 두 번째 타석에서 강정호는 시즌 5호 타점을 수확했다. 집요하게 바깥쪽을 파고든 헨드릭스가 7구째 체인지업을 역시 바깥으로 던지자 강정호는 엉덩이를 빼고 허리를 숙이면서 방망이를 갖다 맞는 타격으로 공을 끌어당겨 좌중간 1타점 동점 적시타를 만들었다. 6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컵스 두 번째 투수 곤살레스 헤르메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그러나 7회초 다시 선두타자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서는 세 번째 투수 에드윈 잭슨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깔끔한 좌중간 안타로 연결했다.

1루를 밟은 강정호는 다음 타자 슈어트 타석 때 2루 도루를 감행했다. 타이밍상 아웃이 예상됐으나 컵스 2루수가 원바운드된 공을 놓쳐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 도루에 성공했다.

강정호는 9회초 선두타자 알바레스의 2루타로 무사 2루 찬스에서 마지막 타석에 섰다. 3볼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강정호는 컵스 네 번째 투수 필 코크의 시속 150km짜리 속구를 밀어쳐 우중간 담을 직접 맞는 대형 2루타를 터뜨리며 알바레스를 홈으로 돌리고 시즌 6호 타점을 쟁겼다.

슈어트의 안타 때 3루를 밟은 강정호는 대타 선 로드리게스의 병살타를 틈타 홈을 밟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은 8-1로 이겼다.

연합뉴스



“강, 잘했어”

지난 30일(현지시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시카고 방문경기에서 시카고 컵스를 8-1로 이긴 뒤 클린트 허들 감독이 강정호와 악수하며 축하하고 있다. 강정호는 선발 출장해 3안타 2타점 등으로 맹활약 했다. /연합뉴스

나지완 ‘펼펼’

‘부진의 늪’... KIA 4번 자리서 제외



4번 타자의 잔인한 4월이었다. KIA 나지완이 4번 자리에서 잠시 벗어난다.

KIA 김기태 감독이 부진에 빠진 4번 타자를 놓고 마침내 칼을 빼어 들었다. 김 감독은 지난 30일

“(나지완이) 주연 역할에서 조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히며 4번을 지켜왔던 나지완을 라인업에서 제외했다.

‘약속의 100타석’이었다.

나지완은 지난 29일 경기까지 올 시즌 24경기에 나와 92타수 16안타로 0.174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홈런은 하나, 득점권 타율은 0.097로 5타점을 올리는데 그쳤다. 초반 부진에도 김 감독은 나지완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 “100타석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팔꿈치 뼈조각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냈고, 스프링 캠프 막바지에는 갈비뼈 부상을 당하면서 호흡을 골라야 했던 만큼 차분하게 시간을 주면서 감을 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나지완은 믿음에 응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29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딱 100번째 타석이었던 6회 경기 세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뒤 6회 대수비 김호영과 교체됐다.

‘약속의 100타석’이 지나면서 나지완의 거취가 관심사가 됐고 김 감독은 라인업 제외라는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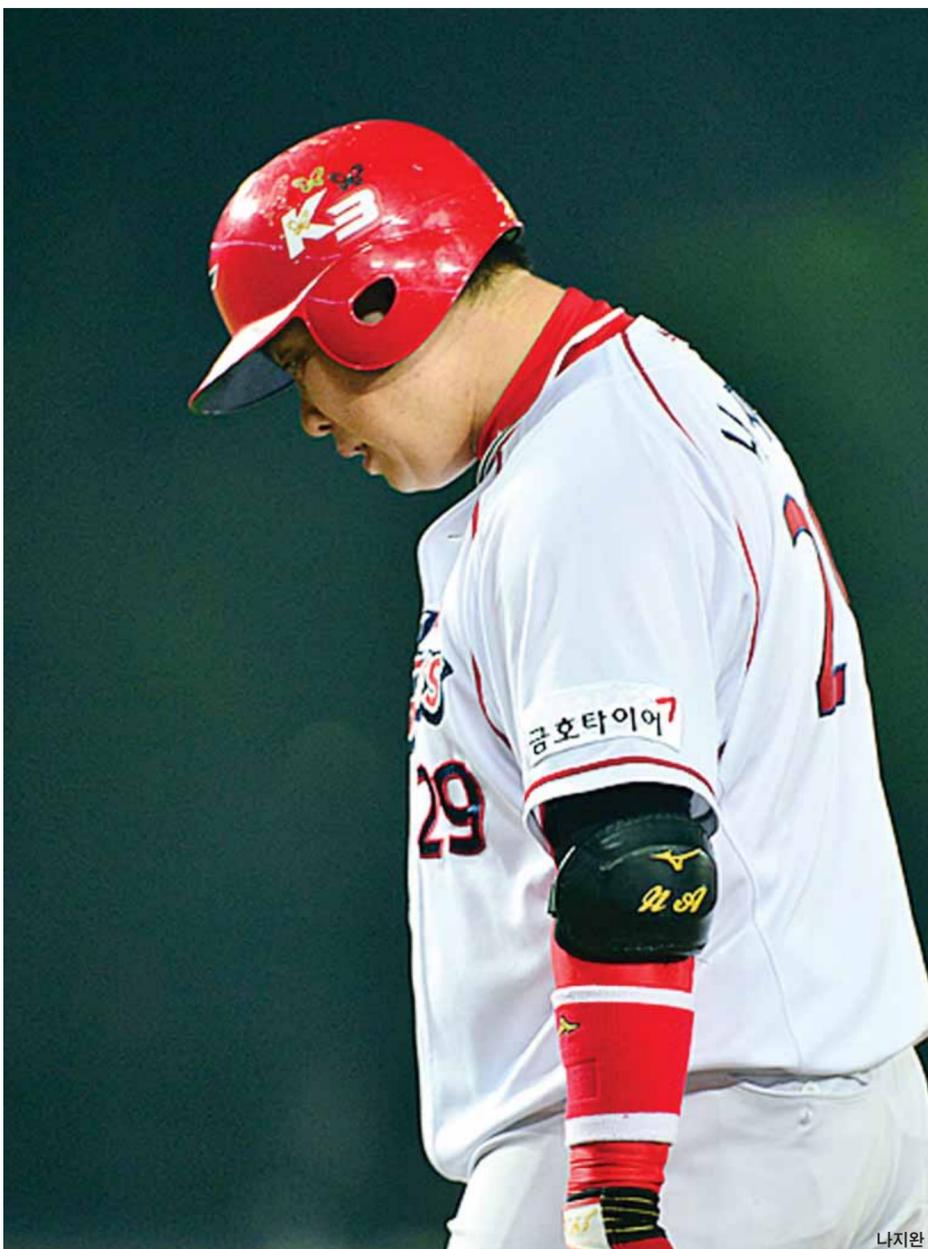
김 감독은 “감독의 역량으로 끝까지 (4번 자리에서) 밀어 붙일까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선수에게 가혹하게 책임을 주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팀에 조그마한 역할이라고 하고 싶다고 하고, 지난 스프링캠프에서부터 팀을 위한 고생을 많이 하고 모범을 보였다. 이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분간 대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며 2군행이 아닌 자리 이동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또 “팀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4번으로 돌아와야 하는 선수다. 시즌이 끝나면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지고 4번 타자를 기용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0일 한화와의 홈 경기에서는 최희섭이 4번 타자 역할을 맡으면서 필-최희섭-이범호가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했다.

4번 타자의 4월은 잔인하게 지나갔지만 KIA의 4월은 절반의 성공이었다는 평가다.

김 감독은 “(센터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실책은 있었지만 최소실책을 기록했고 최용규, 강한을 등도 수비 잘해주고 있다. 4월 한 달 모두 고생했다. 좋은 경기도 있었고 안 좋은 경기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잘한 점도 많았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

덕아웃 특·특

이성우, 언론관심 못받자

“결승타는 내가 쳤는데”

▲“결승타는 내가 쳤는데...”=지난 29일 한화와의 경기 끝난 뒤 온통 스포트라이트는 포수 이흥구로 향했다. 이날 5-4로 앞서 6회 1사 만루에 대타로 나온 이흥구는 한화 유창식을 상대로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이흥구로 들썩이던 덕아웃에서 이성우가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를 했다. “결승타는 제가 쳤는데 주목은 흥구가 받네요.” 이성우는 3-4로 뒤지고 있던 4회 한화 선발 탈보트를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리며 결승타를 기록했었다. 이성우의 이야기에 웃음이 터진 사람들. 최고참 최영필이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네. 내가 이해해야지”라며 이성우를 위로(?)했다.

▲“펜스가 저를 살렸어요.”=멋진 호수비였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지난 29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6회초 관중석에서는 감탄사와 격정의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정근우의 타석때 우익수 이호신이 전력으로 펜스 앞까지 뛰어와 어려운 파울 플라이 타구를 낚아챘다. 아웃 카운트는 잡았지만 이호신은 그대로 펜스에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충격으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충돌이었다. 다행히 메이저리그 수준의 펜스 덕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호신은 “펜스가 저를 살렸다”며 호수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찬스가 잘 안 오니까.”=찬스에 강한 김기태 감독이다. 김 감독은 29일 경기에서 일찍 승부수를 띄웠다. 6회 1점차의 상황에서 1사 만루 기회가 오자 망설임 없이 3루에 있던 최희섭을 빼고 고영우를 대주자로 투입했다. 또 한화 투수가 좌완 유창식으로 바뀌자 좌타자 이호신을 대신해 이흥구를 타석에 세웠다. 이른 감이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승부수를 던진 김 감독. 결과는 이흥구의 만루포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지난 주말 연장 10회 승부가 펼쳐졌던 두산전에서 김 감독은 일찌기 대타 작전을 쓰며 승리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우리 팀 전력상 기회가 많이 오는 편은 아니다”며 이른 승부에 대해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